

치 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언제 어디서나 주인되는 무한능력발전소, 빛나는 청춘”을 주제로 제4회 Young Buddhist Camp를 세계불교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동국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이 깊고 축하의 마음 가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진정한 리더의 훌륭한 자격이라 하겠습니다. 더불어 상호관계 속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 곧 진정한 리더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류의 리더이신 부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한 복판에서 진리를 구현하셨고, 계급을 구분하고 인종을 차별하는 잘못된 가치를 지적하여 인간 평등과 존엄의 가치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물질과 권력을 향한 탐욕과 독점이 득세하는 척박한 시대에 오직 스스로가 주인임을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자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는 최상의 모범이라 할 것입니다.

대학생 불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 저마다 장래를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고있는 원대한 꿈과 미래에 대한 구상을 세상을 무대삼아 힘껏 펼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4회 영캠프를 통해 그 꿈과 비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것을 더 견고하게 다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캠프를 통해 세운 원력으로 개인의 발전은 물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청년 불자로 거듭나리라 믿으며, 함께한 법우들과 앞으로도 진실한 도반을 이루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대학생 불자 여러분! 여러분은 한국불교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리더들입니다. 훌륭한 스스로에게 자긍심을 갖고 즐거운 제4회 Young Buddhist Camp를 보내시길 불보살님 전에 발원합니다.